



전주대학교 공연방송연기학과 제17회 졸업공연 '코뿔소'가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은 코뿔소에 출연한 학생들이 무대에 오르기 전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 '진정한 우리의 가치를 찾아서'

### 전주대 공연방송연기학과 졸업공연 '코뿔소' 흥행

전주대학교 공연방송연기학과 제17회 졸업공연 '코뿔소'가 지난 3일, 4일, 양일간 오후 3시, 7시 네 차례에 걸쳐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코뿔소'는 프랑스의 대표적 극작가 '외젠 이오네스코'의 작품이다. 그는 부조리극의 대표적 작가로, 인간의 소통 단절과 개성의 상실을 작품의 주된 주제로 삼으며 특히, 이 작품의 경우 나치즘의 집단본능을 비판하고자 했다.

전주대학교 공연방송연기학과는 이 '코뿔소'를 통해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집단화된 나의 존재 속에서 진정한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지? 또 어디서 찾을 수 있는 지?', 인간의 존재에 관한 이 원초적인 질

문의 답을 관객과 함께 찾고자 하는 것이다. 작가 외젠 이오네스코는 프랑스에서 태어나 루마니아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1933년, 루마니아는 히틀러가 집권하자 파시즘으로 뒤덮이게 되고, 이오네스코의 조국 프랑스는 나치의 침입으로 고통받았다. 이오네스코는 양국의 상황에 정신적으로 괴로워하며 나치즘을 혐오하게 됐다. 마침내, 그는 1957년에 파시즘을 풍자한 단편 소설 '코뿔소'를 '새로운 문화지'에서 발표했다. 그 후, 1959년에 이 '코뿔소'는 희곡으로 재탄생하여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초연됐다.

전주대학교 공연방송연기학과는 이 '코뿔소'에서 다수의 힘에 압박받는 한 사람을 표현했다. 모두 코뿔소로 변했지만 유일하게 인간으로 남은 '베랑제'가 바로 그 사람이다. '베랑제'는 홀로 코뿔소에 끌려가 지향하지만 의로운 싸움에 괴로워한다. 이런 심리적 변화는 집단에 속해야 안정감을 느

끼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연출을 담당한 김성현씨는 이 '코뿔소'를 통해 대중의 의견에 좌우되는 인간의 심리를 나타내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선택의 연속인 삶 속에서 '베랑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과연 그 선택이 옳은 것일지?' 코뿔소의 열린 결말을 통해 확인해줄 바됐다.

한편, 전주대학교 공연방송연기학과는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가장 각광 받는 분야인 공연예술과 방송영상 산업의 중추적 인재를 교육하고 있다. 공연방송연기학과는 연기, 기술, 방송미디어의 3개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 무대연기자, 뮤지컬 배우, 방송(텔런트, 아나운서) 및 영화 영상 연기자를 양성하며, '제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연출(감독) 및 각종 기술 감독(무대, 조명, 음향, 촬영, 편집) 등의 전문 현장인력을 배출하는 학과이다. /장은성 기자

## 진정한 행복 찾는 댄스드라마 'GRAY'

### 10일 부안예술회관에서 포스댄스컴퍼니 기획공연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현대무용 작품인 댄스드라마 '2018 GRAY'를 오는 10일 오후 2시 공연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부안예술회관 상주단체인 포스댄스컴퍼니(단장 오해홍)의 주술아, 신명수씨가 연출을 맡고 정혜미, 박신형, 진아, 정아연씨 외 6명이 출연하는 댄스드라마로 현대무용의 진수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공연은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는 서른살의 주인공과 친구의 이야기로 어느 날 이 둘은 각자의 인생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서로의 인생을 부러워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날 저녁 이 둘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누군가 정해놓은 굴레에 맞춰 살아가는 인생보다는 나를 위한 진정한 행복을 느

끼며 살아가는 인생이 돼 보자고 이 공연은 제안한다.

이번 공연은 2018년 전북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안예술회관 상주단체인 포스댄스컴퍼니가 창작한 작품이며 포스댄스컴퍼니는 2007년부터 무용을 중심으로 타 장르와 콜라보를 통해 판타지 댄스컬을 제작 공연하고 있는 단체이다.

특히 포스댄스컴퍼니는 2017년 무주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개막식 안무 및 출연, 2017년 천안흥타령 춤 축제 거리퍼레이드 대상 수상, 지난 9월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탈에서 대상을 수상한 실력 있는 단체이다. 공연은 8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선착순 무료입장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 익산관광의 새로운 도약... '문화관광서비스포럼' 성료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포럼과 팸투어를 2일부터 3일까지 웨스턴라이프호텔 및 주요 관광지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문화관광서비스포럼에서 주관하고 익산시가 주최한 행사로 익산 관광의 활성화와 관광상품의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 관광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토의하고 익산 전역의 관광자원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화관광서비스포럼은 두 달에 한 번씩 문화관광 전문가가 50여 명이 문화관광의 정책과 제와 마케팅 전략에 관한 포럼을 개최하였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지역 관광정책을 발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권위 있는 포럼으로 전북에서 개최되는 건 익산시가 최초이다.

이번 포럼에는 정현율 익산시장의 '익산시 관광산업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한 발제와 포럼 공동대표인 변정우 교수(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의 '익산 관광의 미래는?'을 주제로 한 발제가 있었고, 종합토론에서는 전문가 5명 및 지역대표로 김충영 시의원이 참석하여 익산 관광발전에 대한 열띤 토론을 심도 있게 진행했다. 3일에는 백제왕도 익산시의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특히 산업관광과 MICE 집중육성을 위한 관광자원의 개발 및 전략적 접근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팸투어를 실시했다.

변정우 교수(포럼 공동대표)는 "백제왕도 익산시의 관광자원이 풍부함에도 그동안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점이 매우 안타깝고

이제라도 고도 익산의 문화를 핵심으로 하는 관광마케팅을 전략화하면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익산 관광발전 포럼에 참석한 관광 영향력자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백제왕도 익산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이번 포럼을 계기로 새로운 전략적 접근을 통한 관광활성화에 기폭제가 되고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포럼을 유치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시의 문화관광 방향성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관광상품의 다변화와 전략적 마케팅을 통한 관광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 보석대축제 단체사진.

## 익산 보석대축제 성황리 폐막... 다양한 보석 체험 호응

지난 10월 24일부터 12일간 익산시 왕궁면 주얼팰리스와 보석테마 관광지 일원에서 개최된 2018 주얼팰리스 보석대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사)주얼팰리스협회(회장:송재규)가 주최하고 전라북도, 익산시가 후원한 이번 축제는 주얼팰리스에 입점한 60여개 업체의 화려한 보석들을 30% 특별할인(24k, 다이아몬드 제외) 판매, 희귀보석 특별전시, 보석 리세팅, 보석가공시연 및 체험, 원광대학교 귀금속공예과 특성화사업단 운영 등 다양한 보석 체험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보석대축제는 전국 최대 규모의 귀금속판매

센터인 주얼팰리스에서 매년 봄, 가을 2회 개최하는 행사지만 이번 축제는 전국장애인체전과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함께 개최, 전국단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품격도시 익산을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얼팰리스 관계자는 "전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고 있다"며 "보석대축제를 찾아 주신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감사드리며 1400년 전 백제 세공기술을 더욱 승화시켜 다양하고 아름다운 보석 제품 개발에 정진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